

## 지난주일(9월 18일) 설교 발췌

제목: 하나님과 사람 '사이' (딤후 2:1~7)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유일한 분인 첫째 근거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고(호모우시오스)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하나님 인식과 경험과 삶이 유일하기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교 전문가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냐, 또는 세리나 무식한 자나 죄인이냐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고 선언하셨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자비로우시며 능력이 크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하셨고 그 경험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아주 강력해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근거는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사건을 가리킵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죽을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경험한 영원한 생명을 복음서 기자들은 빈 무덤 전승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영화를 찍듯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한 유치원 아이가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단편적인 삽화로만 기억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중심으로 한 부활 전승이 산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신화적이나 핵심은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생생하게, 마치 죽었던 자가 지금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험에 근거하여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21세기 첨단 문명 시대에는 중재자 교리를 믿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이보다 더 확실한 삶의 교리가 무엇인지 제시해보십시오. 죄와 죽음과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당장 욕망을 무제한 발현하는 방식의 삶이나, 또는 적절한 위선과 세련된 교양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납치범의 작은 친절과 진정성에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외면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라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실체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길을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가보겠습니다.

##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2년 9월25일

창조절 넷째 주일

세계 교회력 「다」해 44주

✚ 오늘의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눅 16:25)



사과 속으로 태양이 들어갔다. 꽃이 피고 향기에 벌이 찾아와 수정되어 아기 열매가 맺힌 후 햇살과 비와 안개와 바람을 맞으면서 붉디 붉은 어른 사과로 자랐다. 마법(magic)이 아니고 무엇이라. 우리가 사는 지구는 온통 마법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9월 초순 정 목사가 갯바위로 어느 카페 정원에서 찍은 사진)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  
주일 공동예배: 4:00-5:00/ 간식 및 친교 : 5:00-5:20/ 교육모임 : 5:20-6:00  
담당목사: 정용섭 010-8577-1227,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churchs>

#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 개 회 예 전

### 예배의 부름 ... 목사

우리의 인생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양 일상에 과몰입하여 삽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우리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놀라운 기쁨과 참된 안식과 평화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찬송 77장 (거룩하신 하나님)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온 세상을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금 믿음의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청각과 시각과 촉각을 비롯한 모든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단과 의지를 포함하여,  
더 나아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운명을 걸고  
“스스로 있는 자”(출 3:14)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맡기는 심정으로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런저런 세상일로 쉽게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시어  
하나님과의 결속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며,  
그 어떤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와 안식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매 순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살도록 이끌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거룩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 (Sanctus) ... 다 함께



## [알리는 말씀]

\*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공부모임을 재개합니다. 모임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 예비모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임1.데칼로그:김용규의 십계명,김용성&윤혜정 집사 담당(장소: 아트컬리지5)  
모임2.인문학 Cafe: 신학/철학이 가미된 신앙과 삶에 대한 주제별 공부와 대화,김기범 집사 담당(장소: 4층 동아리방)

\* 주일학교는 10월에도 3주차에만 열리며 11월부터는 4주차를 제외한 모든 주일에 운영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일 헌금 총액: 450,000원(예배헌금 90,000원, 통장헌금 360,000원)  
헌금 계좌 : 카카오 3333142466417 박수진

날짜	설교	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장소
9월 25일	김동호목사	이유선집사	양혜선집사	박은숙,김용성/아트컬리지5
10월 2일	정용섭목사	윤혜정집사	이기령집사	최선아,박정덕/시청각실
10월 9일	김동호목사	오미영집사	양혜선집사	박은숙,김용성/아트컬리지5
10월16일	박재진목사	박수진집사	이기령집사	박수진,김희란/아트컬리지5
10월23일	이춘우목사	김기범집사	양혜선집사	오미영,이유선/아트컬리지5
10월30일	박재진목사	이유선집사	이기령집사	박은숙,최선아/아트컬리지5

##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3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창조절 넷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 충만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기도 중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잘못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기는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삶에서 절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만 몰두해서 살았습니다.

회중: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 간의 경쟁이 너무 심하고, 세상에서 누룩의 역할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선포

목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렘 33:8).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복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 (영광송) ... 다 함께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국악 찬송」 45장 (주는 나의 목자시니) … 다 함께

박화목

이건용

♩ = 96

1. 주 는 나 의 목 자 시 니 부 족 함 이 무 언 가  
2. 내 가 굶 주 려 을 때 나 영 혼 목 이 마 를 때

주는 나 의 목 자 부 족 함 이 무 언 가  
내가 굶 주 려 을 때 영 혼 목 이 마 를 때

비 록 험 한 길 이 라 도 두 려 움 없 이 가 겠 네  
한 량 없 는 사 랑 으 로 나 를 보 살 피 시

비 록 험 한 길 이 라 도 두 려 움 없 이 가 겠 네  
한 량 없 는 사 랑 으 로 나 를 보 살 피 주 시 네

저 원 푸 른 풀 밭 과 맑 은 시 냇물 가 로 도  
수 의 악 한 손 나 를 치 려 할 때 도

나 를 인 도 하 시 는 주 는 나 의 참 목 자  
굳 게 지 켜 주 시 는 주 는 나 의 참 목 자

나의 참 목 자

## 말씀예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생명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세상의 온갖 말들로 인해서 공연히 낙심하고 때로는 들뜨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예레미야 32:1~2, 6~15 … 이유선 집사

성서교독 시편 81:1, 10~16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신곳에 몸을담고/ 전능자의 그늘아래 몸을피한 사람들과  
\*우리주님 요새이며 참된평안 피난처요/ 의지하고 따라야할 하나님이 되신다네  
사냥하는 자의덫과 죽어야할 질병에서/ 우리주님 정녕너를 건져주실 것이로다  
\*주님께서 날개품에 너를안아 지키시고/ 그의품에 안기도록 너를숨겨 주시리라  
우리주의 진실하심 너를지켜 주시겠고/ 너의방패 너의성벽 되어주실 것이로다  
\*그러므로 밤의공포 두려워할 필요없고/ 날아드는 낮의화살 무서워할 필요없다  
흑암관세 몰래탐타 전염되는 온갖질병/ 백주대낮 재앙에도 걱정할것 없으리라  
\*주를향해 부르짖는 너를주가 건지시며/ 주의이름 아는자를 주가높여 주리로다  
네가주를 부를때에 주가응답 할것이며/ 네가고난 받을때에 주가함께 하시리라  
\*그가너를 건져주고 영화롭게 할것이며/ 주가너를 마음편히 안식하며 살게하니  
\*주의구원 네앞에서 밝히드러 나리로다

둘째말씀 디모데전서 6:6~19 … 이유선 집사

\*셋째말씀 누가복음 16:19~31 … 이유선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A - men, a - men, a - men.  
아 멘 아 멘 아 멘

설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 김동호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 2절 … 다 함께